

전주시, 한글날 한글발전 기여 공로 인정 받아

국무총리표창, 디지털화한 서체 개발 보급... 완판본체 복원 등 한글 대중화 기여

국내 유일의 족보 있는 서체인 전주 완판본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발한 전주시가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한글날 경축식'에서 전주완판본체 복원 등 한글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여받았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한 것으로 전북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조선 후기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전주의 역사성을 담은 완판본의 뿌리를 잇고 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한글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꼴 생태계 조성 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완판본을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완판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조형적 아름다움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글꼴인 '완판본체'는 조선 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출판물에 이름 붙여졌다.

시는 300여년 동안 목판 속에 잠들어 있는 완판본체의 복원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지털화한 컴퓨터 서체로 개발, 현재 보급하고 있다. 또한 완판본과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주에



황금빛으로 물든 김제평야 추석 연휴 막바지인 지난 8일, 김제평야에 곡식이 무르익어 황금빛을 이뤘다.

서 간행된 한글고전소설 목판본을 보전·계승하고 과거 왕성했던 전주의 출판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전주완판본 문화관을 건립·운영하고 있다.

완판본 원형목판 5088점은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경북고령의 대장경 문화학교 대표 안준영 작가가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목판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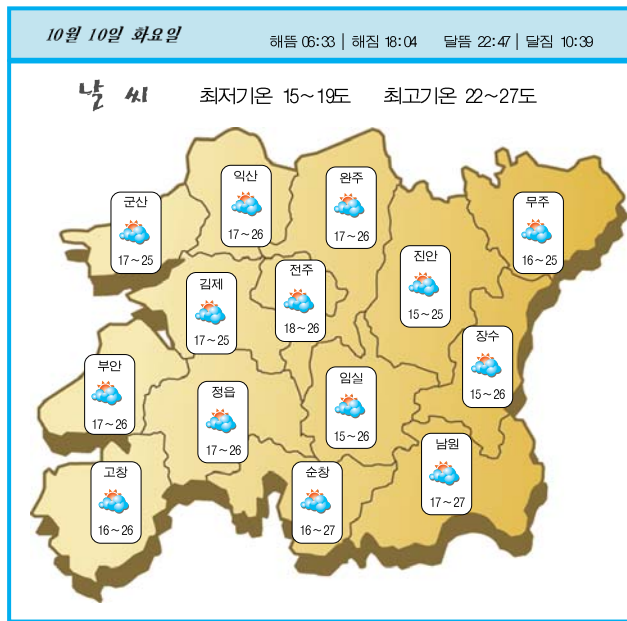
체험관을 운영토록 해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육자를 초청해 한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족적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거리에 한글을 테마로 한 특

색거리를 조성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완판본체는 조선 후기 한글의 대중화, 문학의 보편화를 선도했던 완판본의 뿌리를 잇고 복원하는 법고창신의 의미를 담은 서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주의 정신과 뿌리를 담고 있는 독보적인 서체인 전주완판본체가 널리 보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근기자



공립 단설 '전주아름유치원' 개원

전주아름유치원 개원식이 최근 김승환 교육감과 도의원, 교육장, 유아교육관련 기관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만성지구 현장에서 열렸다.

전주아름유치원은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만 3·4·5세 총 1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모두 244명이다.

전주아름유치원은 만성동 일대 1만4,486㎡ 대지에 연면적 3,528㎡, 유원장 817㎡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전주아름유치원은 친환경 소재 사용 및 내진 설계를 하고 연면적으로 이용 가능한 바깥놀이장과 돌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만성지구 현장에서 열렸다.

전주아름유치원은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만 3·4·5세 총 1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모두 244명이다. 김동파 원장은 "전주아름유치원은 유아·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감교육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교무회의 운영 지원 자료 발간

'토론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교무회의' 도내 학교 배부

전북도교육청은 교무회의의 민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토론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교무회의'라는 자료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지난 2012년, 도교육청의 교무회의 운영규정제정 공문 시행 후 각 학교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이는 교직원이 함께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로 교무회의를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더불어 혁신학교의 확산과 학년협

의회, 교과협의회, 동아리활동, 교육과정 워크숍 등이 활발히 진행되며 도내 학교의 회의문화는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교직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회의 경험 부족과 절차와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와 다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 교육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의 매개체인 교무회의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초·중·고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교무회의 운영개선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져 5개월 이상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하여 '토론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교무회의'라는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각급 학교에서 시기별,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안건과, 회의절차 사례 등을 제시하여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는 한층 다가온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에 대한 준비와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학교교육과정이 교직원들이 진지한 토론으로 결정되는 교무회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은 기자

50개 학교 수학교과실 구축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총 12억원을 편성, 50개 학교에 수학교과실 구축을 지원한다.

최근 도교육청은 체험 탐구 토론 등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수학교육을 위해 총 50개 초·중·고에 1교당 2천만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해 수학교과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20개 학교에는 1천만원씩 지원해 수학교과실 환경개선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수학교과실 구축 예산의 50%는 시설과 설비 구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학수업용 교구 표준인의 필수 교구 등 다양한 체험·탐구·토론 등 학생활동 중심의 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교육청,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학교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수의 교원 성 비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예방교육을 실시해 달라 당부했다.

이와함께 성폭력에 따른 징계기준

을 안내하며 성 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윈스투라이크 아웃)과 표창 등의 사유에 의한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말 기준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비율이 70%에 그치고 있는 만큼 조기 예방교육을 실시해 줄을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국립승안사당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